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교우 : 김승태 성도(카자흐스탄 목장)
2.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다음주일은 목장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목장의 목자들은 빠짐없이 목장모임을 준비해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11월 추천도서입니다.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감사의 7가지 언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상 3권입니다.
5. 이번 주 토요일(11/23) 청소담당은 캄보디아 목장(김윤식 장로)이며, 다음 주일(11/24) 식사담당은 한나 목장(이영선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입니다. 안수집사 신임투표를 12월 8일 주일낮예배 시간에 가집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박성대 집사. 이상 3명입니다.

##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11월 17일	11월 24일	12월 1일	12월 8일
예배기도(오전)		오진석 집사	이준화 집사	신재준 집사	박성대 집사
예배기도(오후)		인도자	목장주일	유숙정 권사	오효근 권사
주일식사담당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캄보디아목장 (11/23)	청년부목장 (11/30)	키르키스목장 (12/7)	키르키스목장 (12/14)

###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여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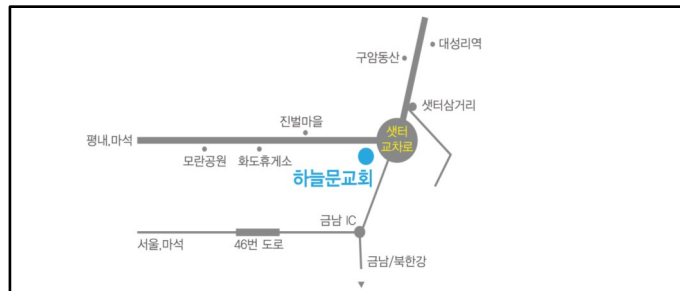
##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 찾아오시는 길



섬김  
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성시교독	..... 교독문 82번(빌 2:5-11)	다같이
*경배찬송	..... 44장(통 56장)	다같이
*참회기도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 589장 (통 308장)	다같이
대표기도	..... 오진석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 살전 5:16-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 인도자	
말씀선포	..... '감사절, 참된 의미란'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 회 소 식 .....	다	같	이	
* 결 단 송 .....	‘주님 말씀하시면’ .....	다	같	이
* 축 도 .....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 12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30

인도 : 김묘상 목사

경배와 찬양	..... 찬양인도 : 아도나이 찬양팀	다같이
묵상기도	.....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 591장(통 310장)	다같이
기도	..... 인도자	
특별찬양	..... 누구든지	
성경봉독	..... 신 34:1-7	인도자
말씀선포	..... '노보산에 선 모세'	김묘상 목사
기도	..... 김묘상 목사	
교회소식	..... 인도자	
찬송	..... '주 여호와와 광대하시도다'	다같이
축도	..... 김묘상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서신서 강해 허영진 목사  
빌 3:10-16 '뜻대로 행해'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올바른 기도의 관' (106)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 후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겨울이 온다**

입동(立冬)이다. 조석으로 마주하는 추위로 몸이 절로 움츠려든다. 가평으로 심방 가는 길. 회색빛 도회지를 뒤로하고 노랑, 주홍으로 변진 끝물 단풍들의 향연이 펼쳐진 곳으로 차를 몰았다. 계절의 시계가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하루 사이에 뒤바뀌는 요즘이다. 한낮의 따스한 늦가을 벌이 차창을 헤집고 들어오고, 곱게 물든 단풍이 마지막 인사라도 하듯 손짓하며 반겨 맞는 듯하다. 미음완보(微吟緩步)하듯 정속주행을 하는 앞선 자동차를 따라 속도를 줄이며 차창을 내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겨울바람을 한껏 담는다.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산야에 비해, 그다지 넓지 않은 논과 밭에는 모든 것이 떠나버린 폐교처럼 황량하기 그지없다. 지난 여름내 뜨거운 태양을 온몸으로 품어 안은 난알들이 여름게 익어 탐스러운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그 장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어디 그 뿐이라. 손길 바쁘던 농부들의 모습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는데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하루는 어느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이 나무인지, 동물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랍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다른 제자가 답변을 이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꽃의 모양과 색깔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의 윤곽이 선명히 드러날 때, 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도 랍비는 손을 내저었다. 뒤이어 여러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만 랍비는 아니라고 했다. 결국 제자들이 랍비의 의견을 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 그 사람이 나의 형제며 내 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이다.”라고.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게 마련이다. 그때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는 작은 불빛 하나가 필요하다. 밝혀 놓은 작은 불빛 덕에 누군가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찌면 우리가 마땅히 밝혀야 할 불을 켜지 않아서인지 모른다. 이 시대는 싸워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한경쟁을 부추기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느라 조바심내지 않고, 무너질까 불안해하지 않고, 매일 아등바등하지 않는 삶을 통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된다면 새로운 아침을 맞는 이가 되지 않을까. 코끝이 시릴 만큼 완전한 겨울 초입이다. 추수를 통한 감사의 계절에 누군가를 위해 살아보자. 붙잡고 싶은 시간, 모두에게 추수의 기쁨이 넘쳤으면 한다. 가을이 간다. 그리고 겨울이 온다.

Written by 허영진